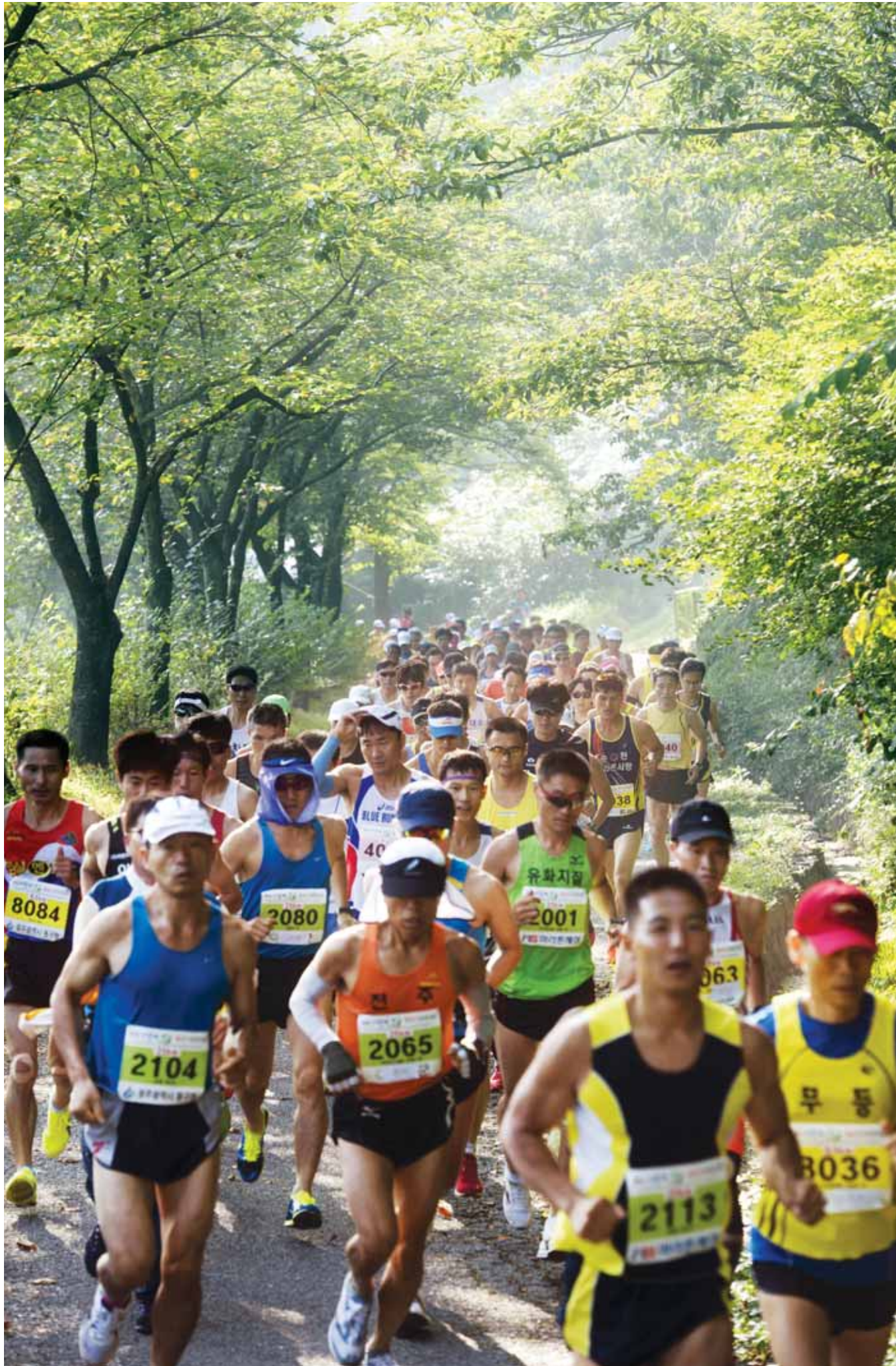




‘이열치열’ 명품 숲길서 마라톤 새역사 열렸다



지난 15일 열린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름다운 너릿재길을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 동구 지원 2동 너릿재 옛길 주차장에서 출발해 화순 소아르 갤러리를 도는 코스로 진행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국 아마추어 마라토너 500여명 풀코스·25km·8.5km 코스서 경쟁 흑서기 지역 스포츠 행사 이정표

‘너릿재’에서 새로운 마라톤대회의 역사가 시작됐다. 광주일보사가 마라톤세상, (사)아시아문화와 공동 주최한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가 지난 15일 초대 우승자를 배출했다. 광주동구청과 화순군청의 후원 속에 진행된 이번 대회는 광주시 동구 지원 2동 너릿재 옛길 주차장을 출발해 너릿재, 화순 소아르 갤러리를 도는 ‘명품 숲 속 코스’로 꾸며져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숲길을 꼽히는 너릿재 옛길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 흑서기 대회가 드문 상황에서 지역 스포츠 행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전국에서 찾은 500여 명의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은 ‘너릿재 옛길 주차장-너릿재-화순 소아르 갤러리’를 5회 왕복하는 풀코스 와 3회 반환점을 도는 25km 코스, 1회 왕복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8.5km 코스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출발에 앞서 참가자들은 댄스 공연과 개막식 행사가 펼쳐진 무대를 중심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며 1회 대회의 추억을 남기기도 했다.

아마추어 마라토너들 사이에 소문난 전국의 고수들이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

남자 풀코스 부문에서 정석호(43·서울)씨가 난코스 3시간 안에 돌파하면서 우승과 서브 3를 동시에 기록했고, 대구에서 찾은 또 다른 고수 신미향(47)씨는 여자 풀코스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25km 우승은 ‘전북 참가자’들이 차지했다. 전주에서 온 송기산(41)씨가 여유있는 질주로 남자 우승자가 됐고, 군산에서 너릿재를 찾은 백지윤(42)씨가 여자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름 내내 실력을 갈고 닦은 전국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은 물론 아빠와 아들, 고3 친구, 군 장병 등의 달리미들이 너릿재 코스의 매력을 느끼며 초대 대회를 빛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나주시·화순군)과 구충곤 화순 군수도 8.5km에 도전장을 내밀고 대회 참가자들과 호흡을 같이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와 화순의 교류 요충지인 너릿재는 5·18 민중항쟁 등 민주와 운동의 중요한 유적지”라며 “광복 70년을 맞은 뜻 깊은 날에 광주·전남 역사의 한복판을 뛰게 됐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충곤(왼쪽) 화순군수와 신정훈 국회의원이 너릿재 옛길 명품 숲길을 달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ina@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구충곤 화순 군수도 “상쾌한 아침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 너릿재 옛길을 달려서 기분이 좋다”며 “대회에 앞서 몇 차례 직접 코스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너릿재길을 찾아 아름다운 자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초대 우승자

부상 딛고 2시간대 ‘6전 7기’ “우승 기운으로 ‘서브3’ 도전”

남자 풀코스 정석호씨

“힘들기로 유명한 너릿재 코스에서 1위와 ‘서브3’를 모두 달성해 기쁩니다.” 서울 마라톤 사관학교의 정석호(43)씨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딛고 2시간55분23초의 기록으로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풀코스 정상에 올랐다. 정씨는 “부상 치료 뒤 수차례 서브3(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이내 완주)에 실패했는데, 좋은 기록으로 너릿재 마라톤 초대 우승을 차지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정씨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실력자 중 한 명이다. 풀코스 완주 140회, 우승 기록만 90회가 넘는다. 하지만, 2013년 8월 부상을 당한 뒤 지난해 복귀했으나 서브3 달성에 6차례 연속 실패했던 터라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무더운 날씨에 오르막 구간이 많은 너릿재 코스 특성상 ‘3시간 안에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날려버린 정씨는 “너릿재 코스는 전국 어느 대회보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이 대회에서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것에 내 자신이 기뻐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여자 풀코스 신미향씨

“1회 대회 우승자 타이틀을 차지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대구에서 먼길을 달려 온 신미향(47)씨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여자 풀코스 우승자가 됐다. 오르막내리막이 심한 험준한 코스였지만 준비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1회 대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신씨는 “태종대 흑서기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했는데 너릿재 코스는 그늘이 많아서 달리기 좋았다. 주로에 급수대와 간식도 잘 준비됐다.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너릿재 대회의 매력을 느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몸이 약해서 10년 전 시작했던 마라톤, 꾸준히 개인 훈련을 하면서 전국 마라톤 대회 단골 우승자가 됐다. 신씨는 “올창한 숲길을 달리면서 훈련을 했는데 오르막이 많은 코스라서 이번 대회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며 “마라톤은 은근과 끈기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끝났다’는 성취감이 마라톤을 하게 된다. 서브 3도 한번 해봤는데 이번 대회 우승 기운을 이어서 남은 시즌 서브 3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화제의 참가자

‘무박7일’ 국토종단 한달만에 출전 유병순씨 “너릿재 매료... 다음 대회 우승”

제한시간 150시간. 무박 7일간의 국토종단 622km 울트라마라톤 대회 완주를 마친지 불과 한 달 만에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영광마라톤 클럽 유병순(57·고창군 대산면)씨는 “기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국토종단 울트라 마라톤대회에서 완주에 성공한 유씨는 “아직 체력 회복이 안 돼 이번 대회 참가 여부를 두고 망설였지만, 너릿재 코스는 꼭 뛰어보고 싶어 참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0도가 넘는 흑서기지만 그늘진 숲길과 안전한 경사는 그에게 지구력·근력 등 몸을 점검하는데 최상의 코스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한 달 만에 참가한 경기라 결승지점 10km를 남겨두고 허벅지 경련으로 중도 포기할 생각도 했었다”며 “완주라는 목표를 이룬 뒤 짜릿한 성취감을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과 달리 자연 속 숲길을 달리는 너릿재 코스에 매료됐다. 다음 대회에는 우승을 목표로 클럽 회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참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첫 400회 완주 박종권씨 “평생 지구 한바퀴 뛰고 싶어”

“살이 다하는 순간까지 지구 한 바퀴를 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1만8500km 남았네요.”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에서 박종권(59)씨는 광주·전남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 400회 완주를 달성했다. 지난 2000년 처음 풀코스를 뛴 이후 참가한 마라톤만 490여 회, 거리는 2만1500km에 이른다.



지난 1999년에 창단한 광주마라톤클럽의 원년 구성원인 박씨는 IMF로 건설업이 부도나면서 생김 고혈압, 당뇨 등 질병을 고치기 위해 마라톤을 시작했다. 마라톤을 완주할 때마다 성취감은 높아졌고, 동아리 회원 70여 명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다. 코스를 5번 왕복해야 했던 이번 대회에서 반환점을 4번 돌고 위기를 맞기도 했다. 기록은 좋지 않지만 평정을 유지하며 묵묵히 달리는 그는 ‘바보 뽀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다음해 열린 너릿재 옛길 마라톤과 3·1절 마라톤에도 참가할 계획인 박씨는 1년에 3000km를 달리며 오는 2021년에 ‘지구 한바퀴’를 달리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세우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가을 풀코스 위한 훈련 점검”

남자 25km 송기산씨

“여름 훈련을 점검하는 대회에서 기분 좋은 우승을 이뤘습니다.” 송기산(41·전주)씨에게는 큰 욕심이 없던 출발이었다. 하계 훈련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참가한 대회였지만 그는 가장 먼저 질주를 끝내면서 남자 25km 부문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다.



송씨는 “7·8월 훈련이 잘 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25km에 출전했다. 그늘진 코스를 달리는 코스가 상당히 좋았다. 기분 좋게 우승까지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씨에게 마라톤은 무료한 삶에 활력소가 되어준 도전이었다. 그는 “마라톤을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된다. 무료하던 일상생활을 깨운 새로운 도전이었고, 마라톤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그 전에는 축구, 테니스를 했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 자신과 싸우면서 고통을 이겨내고 성취감을 얻고 있다”며 “가을에는 풀코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

7년간 같고 닦은 ‘줌마 파워’

여자 25km 백지윤씨

“7년 동안 같고 닦은 아줌마 내공을 원없이 보여줬습니다.” 여자 25km코스에서 우승한 백지윤(42·군산)씨에게는 7년 전 출산 후 살을 빼기 위해 시작했던 마라톤이 자신감과 건강을 되찾은 중요한 계기가 됐다. 매일 20km를 달리며 훈련하는 백씨에게 마라톤은 일상이 됐다.



백씨는 “울창한 숲길이 펼쳐진 너릿재 옛길은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 명소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참가했던 ‘나주 금성산 숲길 마라톤 대회’와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까지 오르기 전 4km 구간에서 위기를 맞았지만 내리막길을 맞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이번 코스는 숲 그늘이 90% 이상이어서 불볕더위에도 체력을 크게 소모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